

2010 건축의 날에 부치는 글

-건축단체들의 총연합과 건축문화청 설립을 촉구하며

Posting Word for The Day of Architecture 2010

- Press Architectural Associations for Grand Union of and Establishment of Architecture Institute

건축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릇이자 터전입니다. 의식주의 하나로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건축의 날」은 그러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민에게 계몽하며 건축문화 창달의 미래를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만든 날입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폐허위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공급과 개발의 숨 가쁜 질주였습니다.

오늘 식전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오셔서 2017년에 117개국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UIA, 즉 세계건축사연맹의 총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선포식과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서울시와 건축계가 합심하여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 한국건축의 수준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의 건축문화가 살아있고, 지난 60년간 건축인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업적이 있기에 가능한 도전일 것입니다.

이 사회의 어느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기념하는 날도 참 많아졌습니다. 건설의 날도 있고 건설기술인의 날도 있습니다. 철도의 날도 있고 도로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날은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인 그런 날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날을 통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건축의 형이상학적 가치의 존중입니다. 그러한 바탕 속에서 건축문화를 빛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건축은 많은 관련 분야의 기획과 조정, 각종 전문분야 기술과 산업의 종합, 건설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설경영, 유지 관리와 방재 기술 등이 통합, 융합되어야 할 방대한 영역이지만 그 중심에서는 시대적 요구조건과 모든 정보를 조합 조정하여 창의적이고 철학적이며 예술적이고도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건축의 작곡과 지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시설계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건축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고 건축기술과 건설산업은 모두 건축을 완성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과정이며 수단과 방법입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건축내외 공간과 형태나 기능을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엮어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건축의 중심 가치입니다.

건축의 날은 건축의 모든 요소와 모든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중심가치인 건축의 소프트웨어를 보호 육성해나가자는 결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문화시대 녹색성장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며 국가브랜드를 살리고 국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영집 / Choi, Young-jip, KIRA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대표
-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
- 국가보훈처 심의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건축단체들의 총연합을 주창합니다.
건축단체총연합회, 약칭 건축총의 설립을 통해 우선 연합활동을 시작하고
건축문화창달 방안을 논의해 나갑시다.
정부에서도 주택의 공급과 도시의 개발에 급급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 주택, 기술, 건설, 경관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화시대에 걸맞는 '건축문화청'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의 수출이 많은 한국산업의 수출로 연결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작가의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건설수출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작곡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위대한 작곡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건축 작가인 Architect, 즉 건축사의 교육은 건축공학교육과 달리 대학 5년제 이상의 강도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법과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사법에 의해 국가고시를 실시, 건축사를 선발하여 국가 공인건축가의 길을 가게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는 오로지 합주를 하기위해 있습니다. 고도의 기량으로 연주하는 주자들은 작곡가와 지휘자를 만나야 빛을 발휘하고 최고의 감동을 청중에게 줄 수 있습니다. 건축외적인 관련분야, 건축내적인 전문분야 모두 건축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고 건축은 작곡과 지휘가 있어야만 완성됩니다.

지난 60년, 건축의 공급시대에 많은 전문분야들이 발전되고 분화되어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양해졌고 각 영역의 중요도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중심 가치는 빈사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아니 실종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급시대 기술과 산업지원에 급급했고 진정한 가치를 보호 육성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주관하는 역할과 협력하는 역할, 생산하는 역할의 위계가 엉망으로 되었습니다. 합심하여 광의의 건축을 키우기보다는 점점 더 분화되며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넓게 인간의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며 물질적인 생활을 디자인하는 창조적 영역입니다.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건축의 세계를 키워나갑시다. 우선 건축계부터 분화되어가기만 하는 건축의 전문분야가 연합하여 힘을 합치고 유사분야는 효율적으로 통합해 나갑시다. 그리고 서로 가르치 말고 배우고 나누지 말고, 더하고 곱하며 키워 나갑시다. 각 분야는 전문화를 발전시키되 건축으로 합칠 때는 더 크게 융합시켜 건축의 창조적 가치를 높입니다. 중심 가치를 존중해주는 풍토를 건축계 스스로 조성합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건축단체들의 총연합을 주창합니다. 건축단체총연합회, 약칭 건축총의 설립을 통해 우선 연합활동을 시작하고 건축문화창달 방안을 논의해 나갑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올해 발기하고 내년에 창립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주택의 공급과 도시의 개발에 급급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 주택, 기술, 건설, 경관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화시대에 걸맞는 '건축문화청'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기본법 정신과도 상통할 것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도 직결될 것입니다. 관도 변하고 민도 변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문화시대 통일 선진국에 걸맞는 건축문화를 이룩해 나갑시다.

건축을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내외 귀빈여러분!

건축문화는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화합과 단결로서만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건축문화 창달은 국가의 목표이자 국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축인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맡은바 역할을 기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 만세! 건축 만세! 건축인 만세! 건축의 날 만세! 🇰🇷